

'09년 상반기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 2009년 6월말 브라질 중앙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09년 2사분기중 브라질로의 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지난 1사분기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9년 2/4분기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112.4억 달러, 유출액은 39.0억 달러로 순 유입액은 73.4억 달러에 달해 지난 1사분기 53.4억 달러 대비 약 37.5% 증가
- 이러한 FDI 유입추세는 역대 최고인 2008년도 45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2009년도에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FDI 유입액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물론 2010년에는 더욱 늘어나 약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표 1> 브라질 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8.1-6	2009.1-6
1. 순 FDI (a+b)	18,782	34,585	45,058	16,710	12,684
(유입)	(32,296)	(50,233)	(71,836)	(27,639)	(23,274)
(유출)	(13,514)	(15,648)	(26,778)	(10,929)	(10,590)
a. 자본금	15,373	26,074	30,064	10,713	7,718
(유입)	(22,706)	(34,335)	(44,457)	(16,765)	(12,609)
(유출)	(7,333)	(8,260)	(14,393)	(6,052)	(4,891)
b. 대부투자	3,409	8,510	14,994	5,997	4,966
(유입)	(9,590)	(15,898)	(27,379)	(10,874)	(10,665)
(유출)	(6,181)	(7,387)	(12,384)	(4,877)	(5,699)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 2009년 상반기중 총 유입액은 232.7억 달러(자본금 77.2억 달러, 대부투자 49.6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의 276.4억 달러 대비 15.8% 감소하였으며, 총 유출액은 105.9억 달러(자본금 48.9억 달러, 대부투자 57.0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109.3억 달러 대비 3.1% 감소하였음
-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후 브라질내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경제위기 영향을 덜 받은 자동차나 철강 분야 등 공업분야로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
- '09년 1~5월중 업종별 외국인 투자비중은 공업부문이 전체의 54.5%, 농목업 및 광물채굴업이 11%, 서비스업이 34.5%를 차지

<표2>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비 (2009. 1월~5월, %)

	농목업	공업	서비스	전체
2008	11.0	40.0	49.0	100.0
2009	11.0	54.5	34.5	100.0

출처: 중앙은행

- 특히, 공업분야중 자동차 및 금속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반면, 서비스업 및 광산개발업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급감하여 경제위기의 브라질 내 산업별 파급영향이 상반되는 양상

<표3> 주요산업별 외국인 투자 비중 추이

산업 분야	2008(1-5월)	2009(1-5월)
자동차 산업	2.2%	18.3%
금속산업	11.2%	17.0%
화학산업	1.9%	7.6%
제약산업	0.7%	3.5%
광산개발업	23.9%	3.6%
금융 서비스업	11.5%	2.2%

출처 : Kotra

- 한편, '09년 1~5월 사이 1000만 달러 이하 소액 투자는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20.7%를 차지하여 전년동기 비중 16.5% 대비 약 4%가 증가한 반면,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18%에서 16.4%로 다소 감소
- 국가별 브라질 투자현황(지분투자의 경우)은 지난해 브라질 투자 1위 국가인 미국이 '09년 상반기중 14.0%를 차지하여 3위로 하락하였으며, 네덜란드가 24.5%를 차지하여 1위, 독일이 17.2%를 차지하여 2위 였으며, 이외 스페인,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웅 파울루 사무소 제공 >